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분석

최효식¹⁾ 연은모²⁾ 권수진³⁾ 홍윤정⁴⁾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기 자녀의 성장(만 5.58개월~만 25.75개월)에 따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의 변화패턴을 알아보고,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여 3차년에 걸쳐 실시된 한국아동패널의 2,089명의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버지 양육참여,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자녀가치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시간의 변화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양육스트레스 초기값에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초기값 모두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을 예측하는 변인은 아버지 양육참여와 자녀가치 변화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양육스트레스 연구 분야의 이론적 확장과 실천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양육스트레스,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잠재성장모형

- 1)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 2)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 3)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수료
- 4)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I. 서론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이 일어나는 만 2세까지의 영아기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육하는 대상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시기(Van der Kolk, Perry, & Herman, 1991)로 자신을 돌보아주는 대상에게 애착심을 갖게 되는 등 자신을 둘러싼 주변에 신뢰감을 쌓아가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자신을 양육하는 대상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고 적절한 지원을 받는가는 영아의 인지적, 사회적 및 정서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영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영아의 통제를 벗어나 발생하기 때문에 양육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Rao et al., 2010).

그러나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나는 가족 구조 및 역할의 변화는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한 가정 내 양육스트레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육아에 있어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하는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느끼며 이에 따른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McBride, Schoppe, & Rane, 2002).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책임감과 부담감에서 기인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일컫는 양육스트레스(Deater-Deckard, 1998)는 유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행동을 증폭시킴으로써 정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Huth-Bocks & Hughes, 2008), 인지적인 발달을 저해시키기도 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과 실제로 마주하는 힘든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는 일상적인 현상이지만, 이는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위해 보살핌과 애정을 제공하려는 부모의 노력을 감소시켜 유아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큰 위험요소라는 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심리적 구인이다(Respler-Herman et al., 2012; Shea & Coyne, 2011).

보다 구체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Rodriguez & Green, 1997), 이와 같은 어머니의 행동은 자녀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며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역시도 저하시킨다(Amato, 1986). 또한, 부모로부터 학습된 우울하고 비판적인 태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Boivin, Hymel, & Bukowski, 1995) 학교에서의 문제행동(Jessor et al., 1995) 등 부적응적인 모습을 야기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행동발달 및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혀주고 있다. 따라서 양육자,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는 연구는 최근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가정 안팎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관계와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평소 자녀에 대한 가치(권용은, 2003; Arnold, Bulatao, & Fawcett, 1975), 양육에 대한 신념과 지식(Crouch & Behl, 2001), 자기효능감(Coleman & Karraker, 1998), 남편과 사회로부터 양육 지원을 받는 정도(Chan, 1994)와 더 나아가 부부갈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감(Webster-Stratton, 1989) 등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을 수 있는 개인의 양육능력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도움 인식 여부는 양육스트레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평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가치는 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반영하는 개인의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어머니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Arnold et al., 1975). 자녀에 대한 가치가 어떠한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참여 태도와 효능감은 달라질 수 있으며(Ellison & Sherkat, 1993) 이것이 결국 자녀 양육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Reece & Harkless, 1998).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에 대한 가치와 양육스트레스가 갖는 관계는 양육 상황에서 자녀가치가 어머니의 다양한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가령, 높은 자녀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자녀를 합리적으로 지도하며 자녀에게 높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강란혜, 2000), 자녀가 문제행동을 했을 시에도 자신의 관점보다는 자녀의 관점에서 자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노력(박영신·김의철, 2009)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자녀가치를 낮게 인식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Conger et al., 1984) 자신이 계획한 삶에 있어서 자녀의 존재를 걸림돌처럼 느껴 자녀를 양육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향이 있다(Reece & Harkless, 1998). 이와 같이 부모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양육에 대한 생각과 자녀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양육을 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에 대한 가치는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중요한 개인 심리 변인으로 다뤄질 수 있다. 실제로, 양육자가 인식하는 자녀가치와 양육자의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자녀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개인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활에 대한 불만족감은 양육 스트레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송승민·송진숙, 2007; 옥경

희·천희경, 2012; 정미라·강수경·최은지, 2013). 이처럼 부모 개인이 인식하는 자녀에 대한 가치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다양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와 관련을 맺으며 이후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 혹은 불만족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에 대한 가치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혼자만의 노력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타인의 조력을 받을 때 보다 감소될 수 있다. 가령, 가정 내에서 자녀양육이 어머니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부부공동의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남편의 실질적인 양육참여나 어머니가 느끼는 남편과의 정서적 유대감은 자녀에 대한 가치를 높이며(Luster, Rhoades, & Haas, 1989), 이는 궁극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Quittner, Glueckauf, & Jackson, 1990). 이와 같이 사회적인 조력과 어머니를 둘러싼 긍정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정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Chan, 1994).

보다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자녀와 여가활동을 함께하고 자녀의 생활태도나 예의범절 등에 관하여 올바른 지도를 할 경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진다(Roggman et al., 1994). 또한, 양육참여에 적극적인 아버지들은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아이들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보여 어머니의 심리적인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cbride et al., 2002). 이처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낮춘다고 보고하는 많은 연구들에서는 아버지의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자녀 양육의 시기에 경험하는 어려움들에 대해 어머니와 함께 고민하거나 격려의 말을 하는 등의 정서적인 지원이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보고한다(이유나, 2009; Belsky, 1984).

반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들도 일부 존재한다(Respler-Herman et al., 2012). 주위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2세 전후의 영아의 경우 목욕을 시키거나 자다가 보챌 때 달래주기 등과 같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주의가 요구되는 양육이 필수적인데 아버지들의 양육참여는 보통 놀아주기, 이야기하기 등과 같은 보조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김상하, 1998; Barnett & Baruch, 1987). 이에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해 어머니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LaRossa & Reitzes, 1993). 문혁준(2004)의 연구에서도 아버지가 목욕, 수유 등의 신체적이고 일상적인 양육 지원을 하기보다 자녀 습관 및 놀이 지도와 같은 보조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어머니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한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Abidin, 1992; Kalil, Zio-Guest, & Coley, 2005; McBride et al., 2002).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편으로부터의 양육지원은 같은 가치를 추구하며 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현미·도현심, 2004; Simons et al., 1993). 특히, 어머니가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변인이며(O'Neil & Greenberger, 1994), 실제 일부 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Kalil et al., 2005).

따뜻한 격려와 함께 자녀 양육에 있어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에게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효능감을 향상시키기도 한다(Parke, 1996). 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노력의 양과 일에 대한 지속성을 결정하는데(Bandura, 1986), 이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는 목표 달성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올바른 양육지식의 보유 여부는 자녀 양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양육 효능감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양육에 대한 정보와 지원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송연숙·김영주, 2008; Miller, 1988).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양육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상황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대처방법으로 이어져 어머니를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미숙한 대처상황을 경험하는 자녀에게도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자녀의 발달을 저해시킬 수 있다(Hunt & Paraskevopoulos, 1980). 부정확한 양육지식을 가진 어머니는 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이지 못하여 영유아의 발달에 필요한 자극을 제공하지 못하는 반면, 양육지식이 풍부한 어머니는 명확하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Larsen & Juhasz, 1985). 양육지식과 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본 Seo(2006)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 발달과

양육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어머니 집단이 낮은 어머니 집단보다 자녀에게 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영아 발달과 양육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는 유아가 더 적절한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어머니의 양육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아의 적절치 못한 발달은 궁극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어머니가 평소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 아버지의 양육참여, 그리고 양육에 대한 적절한 지식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은 누적될수록 어머니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횡단적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영유아기 자녀의 성장에 따른, 즉, 시간적 변화에 따른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그리고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관계의 종단적 변화 양상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자녀가치 그리고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양육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종단 연구 방법인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적용하여 변수들 간의 종단적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자녀 성장에 따른 시간적 변화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추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종단적 관점에서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은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가 시간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3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총 2,089명이었다. 자녀의 연령은 1차 년도 만 5.58개월($SD=1.20$), 2차 년도 만 14.07개월($SD=1.08$), 3차 년도 만 25.75개월($SD=1.37$)이었다.

어머니의 특성은 1차 년도(2008년) 유효 응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령은 31.31세($SD=3.71$), 월 평균 가구 소득은 320.51만원($SD=149.5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1, 2, 3차 년도의 같은 내용을 묻는 문항들만을 선정하였다.

가. 아버지 양육참여

아버지 양육참여는 어머니가 지각한 남편의 양육참여 정도로서 측정되었다. 총 4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남편은 아기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남편은 아기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남편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남편은 아기와 함께 자주 놀아준다.’이다. 본 연구에서는 4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3차년에 걸쳐 조사한 문항내적합치도는 .77, .80, .80이었다.

나. 자녀가치

자녀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에서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사용된 부모됨의 태도 척도 중 자녀가치와 관련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녀가치 척도는 정서적 가치 3개 문항과 도구적 가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방식은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자녀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서적 가치 문항은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도구적 가치 문항은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3차년에 걸

처 조사한 문항내적합치도는 .72, .75, .76이었다.

다. 양육지식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양육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KIDI(The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MaPhee, 2002)의 13개 문항(예: 아이들은 말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줘도 얼마 동안은 종종 틀린 말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을 이용하였다. 어머니가 직접 응답하였으며, 정답인 경우 1, 틀리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0점으로 부과하여 합한 점수를 양육지식의 총점으로 사용하였다. 점수는 양육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전혀 없는 0점부터 13개의 문항을 모두 맞춘 13점까지의 범위에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확한 양육지식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민현숙·문영경, 2009; 이정림 외, 2010).

라. 양육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는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Abidin, 1990)을 기초로 김기현·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34개 문항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관련된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 방식은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 문항은 ‘아이를 낳은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3차년에 걸쳐 조사한 문항내적합치도는 .84, .85, .86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에 있어서 변화를 추정하고, 그 변인의 변화에 있어서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을 적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의 분석 단계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지며, 본 연구에서도 두 단계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개별변인(종단자료)의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을 분석하는 것이다. 무조건모형을 분석하는 주된 이유는 각 종단자료 변인 간의 기초적인 변화 패턴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다중변인조건모형(multiple

-indicator conditional model)을 사용하여 종단자료 간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을 위해 AMOS 20.0을 사용하였다. 모수치의 추정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할 수 있지만, 최대우도법을 사용하려면 결측값이 없어야 하는데 종단자료에는 결측값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우도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수치 추정방법으로 완전정보최대우도법(FIML: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FIML이 선택된 이유는 결측치를 포함하는 종단자료 분석에서도 최적의 값을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Arbuckle, 1996; Bollen & Curran, 2006; Kline, 2005).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표본크기의 영향에 민감한 χ^2 (Hoyle & Panter, 1995) 보다는 적합도 지수를 중점적으로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비교적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며,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명확한 해석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였다(유성경·홍세희·이아라, 2006; 홍세희, 2000).

III. 연구결과

1. 측정변인 기술통계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그리고 양육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시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 결과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아버지 양육참여,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자녀가치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모형 검증 전에 각 측정변인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 첨도를 점검하였다. 정규성 검증은 왜도 2이상 혹은 첨도 7이상이 아닌 경우 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West, Finch 그리고 Curran(1995)의 기준에 기초했으며, 모든 측정변인들이 단변량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측정변인 기술통계

측정변인	N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아버지 양육참여2008	1,859	3.58	.81	-.31	-.20
아버지 양육참여2009	1,876	3.64	.88	-.36	-.52
아버지 양육참여2010	1,753	3.72	.84	-.36	-.49
자녀가치2008	1,861	3.61	.57	-.22	.01
자녀가치2009	1,887	3.52	.59	-.17	.24
자녀가치2010	1,763	3.50	.58	-.13	.18
양육지식2008	1,830	8.78	2.08	-.58	.32
양육지식2009	1,878	9.04	2.14	-.85	.81
양육지식2010	1,742	9.24	2.13	-.82	.81
양육스트레스2008	1,849	2.74	.62	.13	.05
양육스트레스2009	1,887	2.73	.64	.08	.07
양육스트레스2010	1,764	2.81	.64	.06	.35

2. 상관관계

3년 동안의 각 변인들 간 상관관계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변인들 간의 상관관은 매년 유사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양육스트레스와 부적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과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아버지 양육참여 2008(1)	1											
아버지 양육참여 2009(2)	.61**	1										
아버지 양육참여 2010(3)	.53**	.64**	1									
자녀가치 2008(4)	.15**	.07**	.10**	1								
자녀가치 2009(5)	.13**	.17**	.16**	.60**	1							
자녀가치 2010(6)	.10**	.08**	.18**	.53**	.61**	1						
양육지식 2008(7)	.04	.04	.06*	-.02	.00	-.00	1					

(표 2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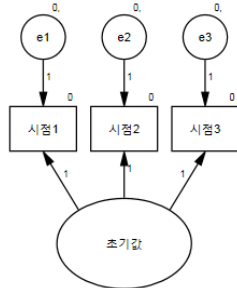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양육지식 2009(8)	.02	.02	.04	-.07**	-.04	-.03	.47**	1				
양육지식 2010(9)	.06*	.08**	.05	.00	.02	-.03	.46**	.52**	1			
양육스트레스 2008(10)	-.26**	-.15**	-.13**	-.21**	-.17**	-.14**	-.07**	-.05	-.07**	1		
양육스트레스 2009(11)	-.18**	-.22**	-.17**	-.16**	-.25**	-.15**	-.12**	-.05*	-.10**	.63**	1	
양육스트레스 2010(12)	-.14**	-.12**	-.21**	-.17**	-.20**	-.25**	-.12**	-.08**	-.06*	.54**	.63**	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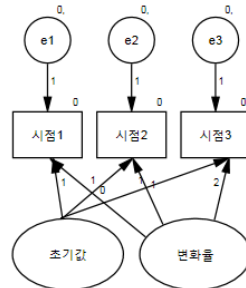
3. 변인별 분석모형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아버지 양육참여, 양육지식, 자녀가치, 양육스트레스가 1차년도에서 3차년도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지 탐색하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을 바탕으로 변화함수를 추정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을 확인하였다. 무 변화모형이나 선형 모형은 측정 시점이 세 시점 이상일 경우에 적용할 수 있고, 비선형 모형은 측정 시점이 네 시점 이상일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모형은 적용하지 않고 무 변화모형과 선형 모형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체계적인 변화 추이를 보이지 않고 매 시점에서 발생한 변화는 무선오차(random error)로 간주하였다(이수진·홍세희·박중규, 2005).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에 대한 변화모형을 결정하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와 초기값의 평균과 분산,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을 검토하였다(고양 & Ho, 2006).

[그림 1]의 무 변화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측정치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모형이며, [그림 2]의 선형 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율의 요인 부하량을 임의적으로 0, 1, 2로 고정하여 선형적인 변화를 가정한 모형이다. 3개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각 시점에서 평균변화를 검토하고, 아버지 양육참여, 양육지식, 자녀가치, 양육스트레스에 대하여 무 변화모형, 선형 모형을 적용시켰다. 그 결과 <표 1>의 평균 변화와 <표 3>의 χ^2 검증, 적합도 지수를 바탕으로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모두 선형 모형을 선택하였다.



[그림 1] 무변화 모형



[그림 2] 선형 모형

〈표 3〉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검증

변인	모형	χ^2	df	TLI	CFI	RMSEA (90% CI)
아버지 양육참여	무 변화모형	113.85***	4	.91	.94	.11 (.10~.13)
자녀가치	선형 모형	.94	1	1.00	1.00	.00 (.00~.06)
양육지식	무 변화모형	104.94***	4	.91	.94	.11 (.09~.13)
양육스트레스	선형 모형	10.76**	1	.96	.99	.07 (.04~.12)
양육참여	무 변화모형	87.36***	4	.88	.92	.10 (.08~.12)
자녀가치	선형 모형	.74	1	1.00	1.000	.00 (.00~.05)
양육스트레스	무 변화모형	59.47***	4	.95	.97	.08 (.06~.10)
양육참여	선형 모형	15.83***	1	.95	.99	.083 (.05~.12)

*** $p < .001$, ** $p < .01$, * $p < .05$

아버지 양육참여 평균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3.59와 .0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1차 년도의 아버지 양육참여 평균이 3.59이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변화율 평균이 .07만큼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리고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초기값에 유의한 개인차가 있으며 2008년에서 2010년까지의 3년간 아버지 양육참여의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기값과 변화율 사이는 부적의 관계가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년도에 아버지 양육참여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종의 천장효과(ceiling effect)로서 초기에 아버지 양육참여가 높은 집단이 이후 상승 여력이 작고, 반대로 초기에 아버지 양육참여가 낮은 집단이 상승 여력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자녀가치 평균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3.60과 -.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1차 년도의 자녀가치 평균이 3.60이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변화율 평균이 -.06만큼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리고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이것은 어머니마다 자녀가치의 초기값이 다르고 2008년에서 2010년까지의 3년간 자녀가치의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기값과 변화율 사이는 부적인 관계가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년도에 자녀에 대한 가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지식 평균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8.76과 .2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1차 년도의 양육지식 평균이 8.76이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변화율 평균이 .23만큼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리고 초기값의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변화율의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양육지식의 변화 정도에는 개인차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기값과 변화율 사이는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양육스트레스 평균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2.73과 .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1차 년도의 양육스트레스 평균이 2.73이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변화율 평균이 .03만큼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리고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2008년에서 2010년까지의 3년간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기값과 변화율 사이는 부적인 관계가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년도에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각 변인의 초기값과 변화율 추정치

변인	평균		분산		초기값과 변화율 상관
	초기값	변화율	초기값	변화율	
아버지 양육참여	3.59 ^{***}	.07 ^{***}	.50 ^{***}	.09 ^{***}	-.32 ^{***}
자녀가치	3.60 ^{***}	-.06 ^{***}	.23 ^{***}	.03 ^{***}	-.34 ^{***}
양육지식	8.76 ^{***}	.23 ^{***}	2.18 ^{***}	.17	-.07
양육스트레스	2.73 ^{***}	.03 ^{***}	.28 ^{***}	.04 ^{***}	-.3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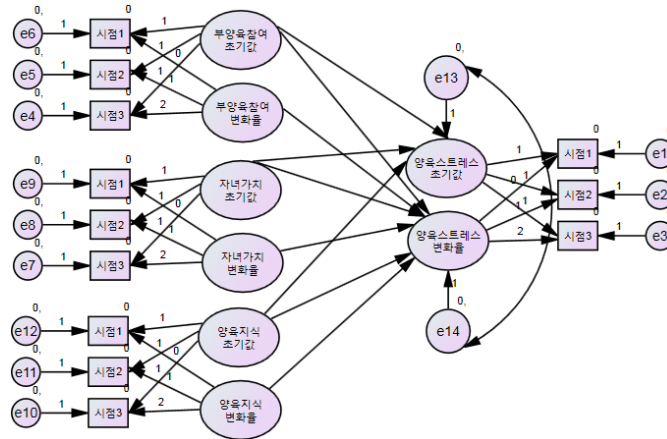
^{***} $p < .001$

4. 검증모형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기초로 하여, [그림 3]과 같은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외생잠재변수의 상관 설정은 생략)을 설

정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는 <표 5>와 같다. CFI와 TLI 모두 .90 이상이고, RMSEA가 .05 이하이므로 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의 모형에서 확인한 경로계수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표 5>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90% CI)
207.72***	37	.95	.98	.05 (.04~.05)

*** $p < .001$

분석 결과, 아버지 양육참여의 초기값은 양육스트레스 초기값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beta = -.28$), 이는 초기의 아버지 양육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초기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약한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 양육참여 초기값은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율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beta = .10$),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율과 양육스트레스 변화율 간 관계에서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검증되었다($\beta = -.21$). 본 연구에서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양육스트레스 변화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부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 양육참여가 급격하게 증가할수록 양육스트레스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아버지 양육참여가 완만하게 증가할수록 양육스트레스는 급격하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자녀가치의 초기값은 양육스트레스 초기값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beta = -.24$)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의 자녀에 대한 가치 수준이 높을수록 초기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데에 초기 자녀가치 수준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가치 변화율과 양육스트레스 변화율 간 관계에서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검증되었다($\beta = -.33$). 본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가치 변화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부적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가치가 급격하게 감소할수록 양육스트레스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자녀가치가 완만하게 감소할수록 양육스트레스의 증가 속도가 완만해 졌음을 의미한다.

양육지식의 초기값은 양육스트레스 초기값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beta = -.11$)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의 양육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초기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지식 변화율과 양육스트레스 변화율 간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했을 때, 양육스트레스 초기값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버지 양육참여 초기값, 자녀가치 초기값 순이었으며,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녀가치 변화율, 아버지 양육참여 변화율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 오차	t	표준화 계수(β)
양육스트레스 초기값←아버지 양육참여 초기값	-.20	.02	-9.31***	-.28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아버지 양육참여 초기값	.03	.01	2.13*	.10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아버지 양육참여 변화율	-.13	.04	-3.65***	-.21
양육스트레스 초기값←자녀가치 초기값	-.26	.03	-7.85***	-.24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자녀가치 초기값	-.03	.02	-1.78	-.09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자녀가치 변화율	-.36	.09	-3.96***	-.33
양육스트레스 초기값←양육지식 초기값	-.04	.01	-3.43***	-.11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양육지식 초기값	-.02	.01	-1.95	-.12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양육지식 변화율	.09	.07	1.32	.20

*** $p < .001$, ** $p < .01$, * $p < .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장(만 5.58개월~만 25.75개월)에 따른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의 변화패턴을 알아보고,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Hunt & Paraskevopoulos, 1980; Kalil et al., 2005; Reece & Harkless, 1998)들은 대다수 횡단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을 활용한 종단자료 분석을 통해 네 변인의 발달궤적을 확인하고 이들의 종단적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버지 양육참여,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자녀가치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출산 후 3년 동안 일정한 선형 패턴을 가지고 증가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일반적으로 4~5세보다 영아기부터 걸음마기에 속하는 0~3세의 시기가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보다 어려움을 느끼게 하므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보다 폭넓게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유우영·최진아·이숙, 1998; Crnic & Booth, 1991)과 맥을 같이하며, 출산 초기부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문제에 사전 개입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양육스트레스의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의 변량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일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어머니의 개인차가 양육스트레스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잘 보여주며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영유아기의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증가하지만,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에 대한 가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아동이나 발달 관련 전공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유아의 발달에 대한 정보와 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한 실정이지만(김영주·송연숙, 2007) 어머니들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점차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나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Goodnow, 1988). 그러나 자녀

가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에 대한 가치는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 중의 하나는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자녀 양육의 모습과 다른 실제 자녀를 양육하며 경험하는 자녀의 부정적인 모습들에 의해 비롯되는 스트레스가 점차 자녀에 대한 가치를 저하시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개인 간 변량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출산 초기부터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있어 개인 내 차이뿐 아니라 개인 간 차이가 존재함을 반영하는 결과로 출생 초기에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아버지들이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낮은 참여 수준을 유지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평균적으로 아버지 양육참여는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내지만, 개인마다 양육에 참여하는 변화율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가족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자녀를 갖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육아란 부인과 함께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할수록 아버지 스스로 육아에 참여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Barnett & Baruch, 1987).

둘째, 시간의 변화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양육스트레스 초기값에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초기값 모두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자녀를 출산하는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한다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김영희·신희정·채영문, 2007; 김정란·김경신, 2009)과 일치한다. 특히,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의 세 변인 중에서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초기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사회적 지원이 증가할수록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며(박수미, 2008) 충분한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를 낮춘다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Leahy-Warren, McCarthy, & Corcoran, 2012; Logsdon & Davis, 2003)과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육에 많은 부분 책임을 떠안고 있는 아내를 따뜻하게 격려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주는 남편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저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은 아버지 양육참여와 자녀가치 증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 양육참여 수준의 증가분이 클수록, 자녀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의 감소분이 적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심각성 정도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영유아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해소시켜주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어머니의 양육부담과 스트레스를 낮춰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espler-Herman et al., 2012). 하지만 본 연구 결과 아버지 양육참여는 아동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못해 어머니의 실질적인 양육부담을 줄여주지는 못하더라도, 아버지가 보여주는 자녀에 대한 관심과 양육 전반에 대한 도움은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주어 양육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가 적을수록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행복감과 기쁨을 느낄수록 양육을 통해 발생하는 부담과 어려움을 적게 보고한다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Abidin, 1992)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산 직후부터 시간 경과에 따라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가치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아버지 양육참여의 증가 정도와 자녀가치에 대한 감소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지식의 증가분은 양육스트레스의 증가분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생 초기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통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지만(송연숙·김영주, 2008; Miller, 1988), 영유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양육지식을 많이 습득해가는 것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양육스트레스를 줄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주로 관련 변인 간의 횡단적인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이들 변인 간의 종단적 변화 관계를 살피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종단적 관계를 밝힘으로써 양육스트레스 연구 분야의 이론적 측면을 확장했을 뿐 아니라, 가정이나 지원 센터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적절한 중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함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된 양육스트레스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변화한다는 사실은 그동안 횡단적으로 수행된 관련 연구들이 잠재적으로 변화하는 변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초기 시점에서 높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가 인식한 자녀가치와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하고, 어머니의 자녀가치에 대한 감소폭이 적은 것이 양육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의 선행연구결과들은 양육 지원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한 시점에서의 양육스트레스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보다 실질적인 양육스트레스 지원을 위해서는 향후에는 관련 변인들이 한 시점뿐 아니라 시간적 흐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경험과학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문제에 중점을 두고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요인에 국한하여 분석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다양한 변인(예: 어머니의 건강상태, 어머니의 연령, 경제적 상황 등)들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와 관련 변인 간의 관계성에 있어 조절효과(예: 모 취업 여부)를 가지는 변인과 매개효과를 가지는 변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더불어, 현재 한국아동패널에서는 3시점에서만의 측정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비선형적 변화를 모형화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4차년도 이후에 비선형적 변화경향성이 발견될 경우 가속도 모수치를 포함하는 비선형적 성장모형의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4시점을 활용한 변화 경향성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이에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보다 확장해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란혜(2000). 한국과 일본 아버지의 자녀양육 행동의 비교. 아동학회지, 21(2), 119-133.
- 권용은(2003). 자녀가치에 대한 세대간 유사성과 상이성에 대한 연구: 청소년 어머니 할머니세대 집단간 비교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상하(1998). 아버지의 영아 양육참여와 관련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주·송연숙(2007). 1세-3세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 지식과 양육 스트레스. 열린

- 유아교육연구, 12(4), 475-493.
- 김영희·신희정·채영문(2007). 원가족의 정서분위기, 결혼만족도 및 부모역할 자신감이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2), 67-87.
- 김정란·김경신(2009). 자족기능과 가족주의 가치관이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133-149.
- 김현미·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문혁준(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2(11), 109-122.
- 민현숙·문영경(2009).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타일과 영아의 발달간의 관계.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579-593.
- 박수미(2008). 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내 성 형평성. *한국인구학*, 31(1), 59-77.
- 박영신·김의철(2009). 한국 성인 남녀가 행복에 이르는 길: 직업 성취, 자녀 성공,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467-495.
- 송승민·송진숙(2007). 부모의 양육신념 및 역할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3-7세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충북가정학회지)*, 16(5), 933-944.
- 송연숙·김영주(2008).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81-203.
- 육경희·천희영(2012). 가구소득에 따른 부부관계와 자녀가치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연구. *아동학회지*, 33(1), 205-221.
- 유성경·홍세희·이아라(2006). 남녀 학업 우수 청소년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학업 효능감의 매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37-851.
- 유우영·최진아·이숙(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 이유나(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사회적 지원, 직업 만족도, 역할 갈등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진·홍세희·박중규(2005).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개인적, 가족적 변인간의 연구: 시간에 따른 변화와 상호 연관성. *교육심리연구*, 19(4), 1179-1197.
- 이정립·이정원·김진경·송신영·왕영희·이예진·신나리·김영원(2010). 한국아동패널 제1차 심층조사 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정미라·강수경·최은지(2013). 영, 유아기 어머니의 원가족 양육경험과 생활만족도가 자

- 너가치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2), 193-21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보고 및 원자료 CD.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PSI)*.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Amato, P. R. (1986). Marital conflict,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child self-esteem. *Family Relations*, 35(3), 403-410.
- Arbuckle, J.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 A. Marcoulides & R. E. Schumacker (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pp. 243-277). Mahwah, NJ: Erlbaum.
- Arnold, F., Bulatao, R. A., & Fawcett, J. T. (1975). *The value of children: A cross-national study* (Vol. 1): East-West Population Inst.
- Bandura, A. (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3), 359-373.
- Barnett, R. C., & Baruch, G. K. (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1), 29-40.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ollen, K. A., & Curran, P. J. (2006). *Latent curve models: A structural equation approach*. Hoboken, NJ: Wiley.
- Boivin, M., Hymel, S., & Bukowski, W. M. (1995). The roles of social withdrawal, peer rejection, and victimization by peers in predicting loneliness and depressed mood in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4), 765-785.
- Chan, Y. C. (1994).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mothers who physically abuse their children in Hong Kong. *Child Abuse & Neglect*, 18(3), 261-269.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1), 47-85.
- Conger, R. D., McCarty, J. A., Yang, R. K., Lahey, B. B., & Kropp, J. P. (1984). Perception of child, child-rearing values, and emotional distress as mediating

- links between environmental stressors and observed matern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6), 2234-2247.
- Crnic, K. A., & Booth, C. L. (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4), 1042-1050.
- Crouch, J. L., & Behl, L. E. (2001).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beliefs in corporal punishment, reported stress, and physical child abuse potential. *Child Abuse & Neglect*, 25(3), 413-419.
- Deater-Deckard, K. (1998). Parenting stress and child adjustment: Some old hypotheses and new question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5(3), 314-332.
- Ellison, C. G., & Sherkat, D. E. (1993). Obedience and autonomy: Religion and parental values reconsidered.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2(4), 313-329.
- Goodnow, J. J. (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2), 286-320.
- Hong, S., & Ho, H. (2006). Direct and indirect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student achievement: second-order latent growth modeling across ethnic group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1), 32-42.
- Hoyle, R. H., & Panter, A. T. (1995). Writing about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 (pp. 158-176).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Hunt, J. M., & Paraskevopoulos, J. (1980). Children's psychological development as a function of the inaccuracy of their mothers' knowledge of their abilitie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6(2), 285-298.
- Huth-Bocks, A. C., & Hughes, H. M. (2008).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adjustment in families experienc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3(4), 243-251.
- Jessor, R., Van Den Bos, J., Vanderryn, J., Costa, F. M., & Turbin, M. S. (1995).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Moderator effects and developmental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31(6), 923-933.
- Kalil, A., Ziol-Guest, K. M., & Coley, R. L. (2005). Perceptions of father involvement patterns in teenage mother families: Predictors and links to mothers' psychological adjustment. *Family Relations*, 54(2), 197-211.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Y: Guilford Press.
- LaRossa, R., & Reitzes, D. C. (1993). Continuity and change in middle class fatherhood, 1925-1939: The culture-conduct conne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2), 455-468.
- Larsen, J. J., & Juhasz, A. M. (1985). The effects of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and social-emotional maturity on adolescent attitudes toward parenting. *Adolescence*, *20*(80), 823-839.
- Leahy-Warren, P., McCarthy, G., & Corcoran, P. (2012). First time mothers: social support, maternal parental self efficacy and postnatal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1*(34), 388-397.
- Logsdon, M. C., & Davis, D. W. (2003). Social and professional support for pregnant and parenting women. *MCN: The American Journal of Maternal/Child Nursing*, *28*(6), 371-376.
- Luster, T., Rhoades, K., & Haas, B. (1989).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values and parenting behavior: A test of the Kohn hypothe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1), 139-147.
- MaPhee, D. (2002).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Survey of Child Care Experiences & Manual* (2nd ed). Unpublished manuscript, Colorado State University.
- McBride, B. A., Schoppe, S. J., & Rane, T. R. (2002). Child characteristics, parenting stress, and parental involvement: Fathers versus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4), 998-1011.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2), 259-285.
- O'Neil, R., & Greenberger, E. (1994). Patterns of commitment to work and parenting: Implications for role strai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1), 101-112.
- Parke, R. D. (1996). *Fatherhoo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Quittner, A. L., Glueckauf, R. L., & Jackson, D. N. (1990). Chronic parenting stress: Moderating versus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6), 1266.
- Rao, H., Betancourt, L., Giannetta, J. M, Brodsky, N. L., Korczykowski, M, Avants, B. B., & Detre, J. A. (2010). Early parental care is important for hippocampal maturation: evidence from brain morphology in humans. *Neuroimage*, *49*(1), 1144-1150.

- Reece, S. M., & Harkless, G. (1998). Self-efficacy, stress, and parental adaptation: Applications to the care of childbearing families. *Journal of Family Nursing*, 4(2), 198-215.
- Respler-Herman, M., Mowder, B. A., Yasik, A. E., & Shamah, R. (2012). Parenting beliefs, parental stress, and social support relationship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2), 190-198.
- Rodriguez, C. M., & Green, A. J. (1997). Parenting stress and anger expression as predictors of child abuse potential. *Child Abuse & Neglect*, 21(4), 367-377.
- Roggman, L. A., Moe, S. T., Hart, A. D., & Forthun, L. F. (1994). Family leisure and social support: Relations with parenting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head start parent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9(3), 463-480.
- Seo, S. J. (2006). A study of infant developmental outcome with a sample of Korean working mothers of infants in poverty: Implications for early intervention program.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3(4), 253-260.
- Shea, S. E., & Coyne, L. W. (2011). Maternal dysphoric mood, stress, and parenting practices in mothers of Head Start preschoolers: The role of experiential avoidance. *Child & Family Behavior Therapy*, 33(3), 231-247.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3). Stress, support, and antisocial behavior trait as determinants of emotional well-being and parenting practices among single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2), 385-398.
- Van der Kolk, B. A., Perry, J. C., & Herman, J. L. (1991). Childhood origins of self-destructive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8(12), 1665-1671.
- Webster-Stratton, C. (1989). The relationship of marital support, conflict, and divorce to parent perceptions, behaviors, and childhood conduct proble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2), 417-430.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논문 접수 9월 29일 / 수정본 접수 11월 28일 / 게재 승인 12월 20일

·교신저자: 연은모,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이메일 rain4515@snu.ac.kr

Abstract

A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 Maternal Perception of Father Involvement in Child Care, Value of Children,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Stress

Hyosik Choi Eun Mo Yeon Kwon Soo Jin Yoon Jeong Hong

Using a three-years (2008~2010) longitudinal sample of 2,089 Korean mothers who raise infants aged between 0 to 2 from Korean Children Panel Survey, this study examined a growth curve model of maternal perception of father involvement in child care, value of children,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stress and identified their relationships with AMOS 20.0. As a result, maternal perception of father involvement in child care,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stress were increased whereas value of children was decreased as children grow older. Results also found that the initial value of maternal perception of father involvement in child care, value of children, and parenting knowledge behaved as significant predictors on the initial value of parenting stress. In addition, changes of maternal perception of father involvement in child care and value of children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initial changes of parenting stress. In sum, we discusse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 maternal perception of father involvement in child care, value of children,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stress.

Key words: parenting stress, father involvement in child care, value of children, parenting knowledge, a growth curve model